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6. 18.(목) 조간 < 6. 17.(수) 15:00 >

부산중기청, 지역특화기업 육성과 규제개선 방안 논의

- 6월 17일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제6차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개최
- 지역특화프로젝트 지원 대상 기업 추가 선정, 2분기 규제 발굴 사항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6월 17일(수) 15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서 '제6차 부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운영된다. 협의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KOTRA, 한국은행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지역 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2.0 참여기업 편입' 사항을 보고했으며, 이번 보고에는 지역혁신선도기업(R&D) 선정기업 가운데 ㈜한엑스, ㈜씨넷, ㈜세보테크놀로지, ㈜대양계기, ㈜화신볼트산업 등 5개 기업을 추가 편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서 '2026년 2분기 중소기업 규제* 발굴·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국고보조율 상향 등 총 7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뤄졌으며, 분야별로는 수출1건, 자금2건, 판로1건, 인증1건, 기타 2건이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중기청 이청일 청장은 “이번 협의회는 지역 유망기업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과 레전드50+ 사업을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유관기관과 함께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6차 중소기업 지원협의회 사진 15시 이후 배포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호정 (051-601-5102)
			팀 장	배소혜 (051-601-5103)
		담당자	주무관	김한진 (051-601-510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